

테마칼럼

이재상 e세상

김고출에 앞서

정체로 세상보기

지역 콘텐츠산업에 관심을



이상길

한국의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거대한 미디어 기업의 형태보다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이는 규모보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이 시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세계 전자업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폰을 통해 볼 수 있듯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이 새로운 성공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모 전자회사가 침례에서 법인 출범 행사를 했을 때 벌어진 일이다. 행사장에 전시된

많은 첨단전자제품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몰랐던 제품은 새로 출시된 LED TV였다. 그러나 관람객들을 때려시킨 것은 그 제품에 채택된 첨단 기술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관객들의 주된 관심은 한국가수의 뮤직비디오였다. 그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가수의 다이내믹한 음악과 영상이 LED TV를 통해 계속 흘러나오자 현지인들이 열광을 한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소니는 3D 기술에 승부를 걸었다고 한다.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TV 시장을 장악한 결과 소니 TV 사업부가 6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는 등 도무지 디지털 기술로는 한국의 전자회사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은 그 성장률이 GDP 증가율의 두 배에 이른다. 고용증가율은 제조산업

보다 4배에 가깝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산업이다.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의 영업이익률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을 2배나 넘어서고 조그마한 한국 애니메이션화가 만든 '뽀로로' 캐릭터는 로열티 수입만 연간 100억 원, 제품 매출액은 5천억 원 정도에 이른다.

한국의 문화콘텐츠 기업들은 거대한 미디어 기업의 형태보다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이는 규모보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이 시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선한 아이디어는 꼭 짜인 대규모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업체에서 더 찾기가 쉽다.

이런 점에서 1인 창업이 가능하고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 상품 생산이 가능한 정보, 문화산업은 오히려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다. 우리 모두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뛰어난 창의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체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정보통신, 문화산업, 이 세상과 e-세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에 발맞춰 끈기있게 도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있다. 이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 이들에게 관심과 힘을 북돋아줘야 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월급도 못주는 지방재정, 대책 서둘러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방교부금 축소, 감세, 지방세 신설 등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자치단체들이 직원을 월급도 못줄 정도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군·구마다 돈가물로 난리다. 광주시 5개 구청 가운데 서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1년치 급여 가운데 8개월 분만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자칫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재정의 악화는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4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중 지방세도

입으로 지방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실용성이 의문이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에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재정으로 돌려드려도 1조4천785억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지방에 내려오는 돈이 2조6천억 가량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시 각 구청은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가 50억~60억 원 줄어든다. 광주시에서 내려오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도 최대 156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세출은 국비와 매칭펀드로 편성되는 복지사업과 국가 보조사업이 증가해 급증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다.

정부 정책운용 기초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자체는 큰 빚더미에 올라설 게 분명하다. 정부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더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세워서 안 된다.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기업 투자유치, 천일염 명품화 기대한다

천일염 명품화 사업이 대기업 투자유치로 탄력을 받고 있다. 종합식품체인 대상(주)은 10일 전라남도, 신안군과 투자협약을 맺고 국산 천일염 세계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상은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1천400억원을 투자하고 생산된 천일염 제품과 가공품의 국내의 시장 개척에 나선다.

전남이 주산지인 한국 천일염은 맛뿐만 아니라 미네랄의 보고(寶庫)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프랑스 '계량당 소금'보다도 3배나 많다. 이처럼 뛰어난 품질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천일염 명품화에 다각적인 지원을 펴고 있다. 지난해부터 광물에서 식품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제조와 가공분야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되면서 천일염 육성의 전기는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국산 천일염의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정보망과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면 경우 전방산 천일염의 고급화가 기대된다. 이번 대상과의 투자협약 체결에 의미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어 천일염의 국산 둔갑을 막는 것도 시급하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업계 스스로 '착용 천일염' 표시에 앞장서야 한다.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체계적인 출하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들고, 위생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다. 일부 영세 업체의 보관 시설 등은 아직도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설 개선과 보수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자금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전남산 천일염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나설 경우 현재 1천억원대인 천일염 시장은 5년 뒤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한식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산 천일염 명품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無等鼓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산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된다. 속으로는 끓어 터질 지언정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야 더욱 혹독하겠는가, 고객의 짜증과 무례함을 항상 미소로 응대해야 하니 말이다. 또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은 어떨까. 상사 눈치보다 속속 커가는 후배를 견제

그 증상은 우선, 내가 뭘 느끼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무뎠해진다. 또 타인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 우울증을 앓으면 식욕 및 성욕 저하, 두통, 불면, 복통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마일 우울증



하루, 거기에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미소와 허세로 무장하고,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가 잦다 보면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라는 대증가요에 '공감 백배' 할 것이다. 하지 만 이렇게 쌓이는 스트레스를 쉽게 생각해 방치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자칫 '스마일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원래는 '마음 대신 몸이 아픈 우울증'이라 해서 '가면 우울증'이라 불리는데,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어도 속은 끓어가는 증상 때문에 '스마일 우울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스마일 우울증은 사실 알고 보면 위험한 '전염병'이다.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우는 사람은 대부분 하급자나 가족 등 만만한 상대에게 화를 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그의 짜증을 받아낸 사람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 '일일 일이고, 나'라는 감정적 격리, 또 친구·가족들과의 대화, 대범한 자세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마음이 짙어 중요하다는 것인데, 오늘부터라도 즐거운 일 꼭 한가지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임내현

국민권익위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 5년 연속 수능성적 1위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 덧붙여 며칠 전 광주의 어느 TV방송국이 이 경제난 속에서 15억여 원의 흑자를 벌어들여 전국의 19개 계열사 중 2위를 하였다. 이는 말도 듣고 이 지역이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청렴도 평가 1위라는 남보에 더욱 고무되어져 광주시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축하한다.

부족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곧 부정부패라는 인식으로 그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 9월 1일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고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도 반부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반부패에 관한 많은 정책과 제도 그리고 관련법들을 제·개정하였다. 그 결과 정치자금 및 불법적 선거운동이 많이 줄었고 정경유착의 고리도 어느 정도 단절되었다는 긍정적

광주시 청렴도 1위와 한국부패인식지수

parency International) 기구에서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총 180개국 중 40위로 나타났다. 전년도 순위 43위에서 3단계 상승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인 것이다. 그러나 40위라는 것은 12위 내외의 경제수준에 훨씬 못 미치며 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로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평가 평가가 있으나 아직도 공직사회부패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역시 형사정책연구원 발간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도적 통제'라는 책자는 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골자로는 부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처벌을 하는 것, 현행 내부 고발 제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의 주체에 대한 개념과 적용범위를 국가공무원에서 사회 일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였으며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작용과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기에는 역

독자투고를 기립니다. 주제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묘도 지급합니다.

기고



이상식

운전면허 관련 개정 법률이 국회로 통과하면 운전면허 취득이 쉬어지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안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물류비 및 교통혼잡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는 것으로 국민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더욱 줄여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초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연습운전면허 취득자들이 보조 제도가

어 도심 내 교통체증과 사고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의 막대한 증가가 예상되는데 누구를 위한 편의 증진인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우리 국민 4천6백만 명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2천5백만 명, 신규 면허 취득자가 연간 약 80만 명이고, 교통사고의 90% 정도가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편의증진은 일반인을 위한 것이므로 단속비교하여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利器)이지만 잘못 운전하면 흉기(凶器)가 됩니다.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연습운전면허

치도 없는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여 복잡한 도로에서 알아서 연습하라는 것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동승자의 자격도 2년 이상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아닌 일반인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의 인이며, 현재에도 매년 약 80만 명의 신규 연습면허가 발급되어 사고율과 면허 취소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고 교육시간은 줄었으나 시험 내용이 더 강화되었고 면허를 취득하여 연습 교육 없이 도로운전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더 많은 경제적, 정신적 비용이 부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운전 습득 능력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지금의 자동차는 단순 주행기능보다는 운전자의 편의사항 및 안전, 환경을 생각하는 지능 자동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첨단 메카니즘 시대에 운전면허증의 취득은 낙후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이유가 아닌지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생명 띠를 푸는 정책이 아닌 체계적이며 안전에 중점을 둔 더욱 강화된 교육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정책 기조가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자>

겨울철 내의 입어 건강 챙기고 에너지도 아끼자

'자원 빈국, 대한민국' 해마다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다. 기름값이 한 번 때마다 흥여와 불거리를 앓는 나라, 우리는 누구보다 기름을 아끼고 자원을 소중히 알아야 하는 국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난히 겨울철에 내복을 안 입기로 유명하다. 요즘 우리 풍조는 한겨울에도 실내에서 반바지나 반팔 옷으로 지낸다. 텔레비전 드

라마나 쇼프로에서도 반팔이나 반바지 차림으로 연예인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를 제외하면 거의 내의를 입지 않는 것 같다. 외투활동 때 걸뚫은 바람막이에 불과하지만 내의는 보온과 체온유지, 땀 흡수 등에 적합한 건강에도 좋다. 겨울철에는 내의를 입어 건강에 충실하고 기름도 아껴보면 좋겠다. ▲이민경·광주시 동구 대의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사회2부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